

[로스쿨 합격기]

모든 경험은 입시에 도움이 된다

조 현 민

- 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0기



I. 들어가는 말

11월 하순, 두 대학의 면접을 마친 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그 순간까지 매일 편히 잠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 12월 14일과 15일, 전북대학교, 동아대학교 순차적으로 합격을 확인한 후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쁨에 소리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합격 수기는 현재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읽고, 또한 유용하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흐릿한 이 입시의 길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I. 뒤늦은 로스쿨 준비

1. 대학입학, 행정고시 진입

저는 20살이 되던 해, 인하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장래희망

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수능 성적에 맞추어 진학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어영부영하며 1년을 보냈고, 평범한(보기에 따라서는 한심할 수 있는) 학점을 받았습니다. 2학년을 앞두고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때 저는 “상경계열로 가면 취업이 잘되지 않을까?”라는 것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행정고시) 1차 시험(PSAT)은 딱히 공부하지 않아도 적성에 잘 맞으면 된다던데 부모님께 뭔가 하고 있다는 변명이라도 할 겸 해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2. 고시, 그리고 포기

그렇게 2학년이 되던 해 초, 전과시험을 통과하여 경제학과로 진학하였고 얼마 후 PSAT에 합격하였습니다. 무언가 노력하지 않고도 된다는 자만심에 빠진 저는 학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행정고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학부 2,3학년 기간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년간(퇴근 후) 2차 공부를 하였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결제하고 간신히 진도를 따라가며 책을 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부생활 및 복무와 병행하기도 하였고, 어린나이의 자만심에 최선을 다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자만하였다고는 하지만, 나름 4년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과목으로 택한 '경제학'이 끝까지 발목을 잡은 것이 저를 갈등하게 했습니다. 노력부족이 더욱 큰 원인이었겠지만, 수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 두뇌가 타 영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갈등과 대안모색

저는 고민했습니다. 고시의 특성상, 이를 극복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고, 능력과 흥미 모두 떨어지는 과목을 극복하기 위해 종잡을 수 없는 세월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복무 말기 6개월간은 “내 능력이 부족하여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자, “고시한다고 스펙도 학점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고시를 포기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 우연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공인노무사’ 시험이었습니다.

4. 짧은 공인노무사 준비

시험의 상당부분이 학부공부 고시공부에서 얻은 바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기에, 대학생활과 고시공부를 완전한 매몰비용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해당 자격증과 제 진로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과감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후 4학년 1학기는, 신림동 학원과 본교 전공수업, 타 대학 법학과

에 학점교류로 신청한 법학전공과목을 수강하며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시 고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시장배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과 법조직역이지만 공인노무사 자격증으로는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다는 직역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학점이 뛰어나지 않으면 못가는 곳’ 정도로 선입견을 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로스쿨의 입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이 2017년 6월, 저의 4학년 1학기가 끝나가던 시점이었습니다.

Ⅲ. LEET준비

학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5개 로스쿨의 3년간 입학전형을 모두 살펴 본 저는 (학교별로 매년 입시 전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앞으로 다가온 리트를 접수하고 준비하였습니다.

1. LEET는 자신과의 싸움

우선 기출문제지를 구매하여 풀었습니다. 또한 모 사설학원의 동영상 강의를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사의 설명이 모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하였습니다. 혼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느낀 것은, 해설이나 강좌에서 읊어주는 풀이구조와 논리를 듣고 있어도, 이미 출제되어 다시는 출제될 일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만 명확하게 짜 맞추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LEET시험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울창한 숲속에서 야생동물의 흔적을 쫓아가며 마침내 사냥해내는 포식자의 짜릿한 그것이라면, 해설과 강의에 의존하는 것은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초원에서 변수를 통

제한 후 사냥 하는 모습을 찍었던 다큐멘터리의 모습을 연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2. 기출에 올인

시험일까지 약 2달이 남은 시점에서, PSAT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도무지 오르지 않았습니다(100점 내외). 하지만 뒤늦게 준비한 만큼 재수를 각오한 상태였기에, 본 시험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다른 요소를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는 분량을 최소화 했습니다. 기출 외에 사설 등 기타 모의고사를 몇 번 풀어보았으나, 문제와 해설 모두 그 논리구조의 정치함이 본 시험에 비해 떨어지거나, 사고의 방향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 “내가 잘 처야 할 시험은 본 시험이고, 내가 가져야 할 사고방식과 논리구조는 본 시험 출제자들이다.”라고 자신을 세뇌하며, 기출 문제만을 약 6주간 매일, 하루 종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시간을 재서 풀고,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풀고, 친한 친구를 앞에 두고, 친구가 이해하고 수궁할 때까지 설명을 바꿔가며 풀었습니다. 기출문제의 반복은 절대 ‘답만 맞히는’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적어가며, 나 스스로가 ‘출제자 그 자체’가 될 때까지 반복하며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출이라는 훌륭한 무기를 가장 날카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LEET 풀이의 Base

이 글을 읽고 계실 독자분이 어느 시점에서 입학할 준비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와 상관없이(저와 같은 리트 전략을 택할 경우라면 더더욱) 득점향상, 실력상승을 위한 필수는 ‘독서’입니다. 최근에는 수능

시험의 국어과목 마저 그 지문의 길이와 난이도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LEET역시 각 지문에 주어진 시간 대비 그 길이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글의 홍수가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시험의 압박을 견뎌내려면 강한 독서력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에 왕도는 없고 또한 주제의 호불호도 제각각이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위한 독서를 위해서 인문이나 철학 고전서, 각종 신문의 사설, 전문학회지, 학위논문, LEET를 포함한 PSAT등 유사 시험의 기출 및 모의고사의 지문(‘반드시’ 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읽기를 추천합니다)등등을 먼저 시간을 정해서 읽고 몇 줄 내외로 요약하고, 천천히 정독한 후 다시 요약하여 이전 요약과 비교하여 피드백 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반드시 LEET의 Base가 갖춰질 것입니다.

IV. 공인영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드릴 말이 없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영어, 수학이라면 학을 떼고 기피 했던지라, 행정고시 응시를 위해 마련해둔 G-TELP LV2 65점(토익환산 시 약 750)을 제외하면, 공인영어에는 전혀 신경써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공인영어의 반영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였고, 저는 학점이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리트에서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리트 시험일 이전까지 일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8월 말, 리트 가채점 후 120 중반대의 점수를 보고 난 뒤에는 단 두 번의 토익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시 동네 학원에 등록하여 9월초 600초반, 9월말 마지막 토익에서 700초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3정량, 학점-토익-리트에서 리트로 2가지를 메워야 하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급박하게 준비하는

경우, 혹은 영어에 큰 약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인영어는 사전에 할 수 있는 한 몰아쳐서 고득점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V. 지원전략 수립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전 부터는, 각 학교의 실질 반영비와 이전년도 합격자 25%, 50%, 75% 성적 등등이 공개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법 누적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정량요소는 더 이상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진 바 내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찾아야 합니다.

각종 입시설명회에서도 캐치 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공동입시설명회, 개별입시설명회 모두에서 (상담 담당자들과 실제 학생선발 담당자들 간의 소통부재로 인한 실망스러운 설명) 회의를 느끼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사설 학원의 입시 예측 사이트를 통한 모의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원해 볼 만한 모든 학교에서의 제 순위변동과, 제 순위 근방의 경쟁자의 모의지원 변동을 체크해가며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원학교 pool을 5개 내외로 압축한 후, 해당 학교의 지난 5년간 입시요강의 각 반영 비율, 실질 반영 비율을 보며 변화하는 숫자 이면에서, 학교가 어떤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지를 찾아내고자 애썼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해당 지원 pool중 하나였고, 최종적으로 지원하고 합격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동아대학교의 경우 17년 초, 6회 변호사시험에서 상당한 숫자의 합격자를 배출 하여 현수막을 걸고 기사도 많이 내는 등, 찾아온 성과를 기쁘고 자랑스러워 하는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여 저는 해당 기수가 입학한 2014년의 입시요강과 해당년도 입학생들의 데이터를 연구했습니다.

결국, 정량의 준비가 기본이고, 면접과 자소서 준비가 그 끝이라면 이 부분, 지원 전략의

탐색과 수립이 로스쿨 합격의 허리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학교 혹은 지역이 제한적이고 반드시 그 곳만을 가야한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로스쿨 입학자체가 목표라면 절대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VI. 자기소개서 및 면접

1.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직장생활, 장기간의 고시 경력, 봉사활동, 수많은 자격증, 높은 학점 등등을 가진 주위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저 몇 가지로는 스토리텔링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사람 모두가 살아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여 저의 스토리를 잘 풀어내기 위해 했던 방법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가진 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제외하면 휴학 없이 달려온 비교적 어린나이, 고시경험, 그로인한 최소한의 법학 공부 경험, 교내 학생자치기구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로스쿨이 무언가를 증명해낸,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는 짧고 멧 없는 저의 이야기 속에서 나만이 느낀 특별한 감정과 고민, 그리고 이 과정을 딛고 로스쿨에 나아가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 과정에 왜 로스쿨이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적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침착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굳이 타인의 침착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반복해서 읽고 고쳐가며 명문을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아, 워드를 켜둔 채 무엇부터 써야할지 막막하고 첫줄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시는 분이러

면, 제가 작성한 방식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기승전결을 갖추고 순차적으로 써나가기 보다는, 카페 등에서 여유를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다른 자기소개서를 참고해가며 쓸 만한 문장이 떠오를 때마다 기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한 ‘소스’들이 갖추어지면 해당 소스들을 이어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면접

10월 초순 자기소개서 작성이 끝난 후, 11월 말 두 학교의 면접이 끝날 때까지, 매주 주 3~4회 모여 회 마다 3~4시간씩 그룹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저희 그룹의 스터디 진행 방식은 각 로스쿨 면접 기출 주제 및 시사 주제를 활용하여 실전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터디 원 전원이 주제를 받음과 동시에 8분을 카운트(여러 학교가 면접주제 배부 후 답변준비시간 10분을 주는 지라, 실전을 위해 좀 더 타이트 한 시간을 재었습니다)한 후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답안 발표, 나머지 스터디원은 실제 면접관처럼 끊임없이 발표자를 물고 늘어지며 공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스터디가 끝난 후에는, 돌아와 나의 답변과 스터디 멤버들의 질문, 내가 놓치고 다른 발표자는 캐치하여 발표한 근거 등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입시가 끝난 후 이 기간 동안 다른 주제가 약 80여 가지였습니다. 결국 실제로 면접장에서 받은 주제 모두 스터디 당시 준비했던 주제였고, 무탈하게 면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VII. 마무리하며

제 수기의 제목은 “모든 경험은 입시에 도움

이 된다.”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좋아하는 사회, 국어만 공부하고 영어 수학을 방치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토익점수도 형편없습니다. 학부에 입학해서는 학생회 및 각종 자치기구 활동에 빠져 전공공부에 불성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학점도 좋지 못하였습니다. 고시공부하는 등 마는 등 했으며, 공인노무사 자격증 준비도 몇 달 하다 그만두고 급하게 로스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어를 좋아하여 글 읽기를 즐겼고, 그 때문에 PSAT에 응시하여 고시 경험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PSAT을 했기에 LEET에 쉽게 적응했고, 고시를 했기에 공부의 어려움과 성실함과 절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여 이 느낌을 자기소개서에 담백하게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준비를 하였기에 노동법을 배웠습니다. 노동법을 배우면서 ‘경위서’가 아닌 ‘반성문’ 작성의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보았기에, 로스쿨 면접당시 적시에 활용하여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살아온 경험 중에 도움 안 되는 경험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스쿨 입시 준비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학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방황하고 진로를 바꾸고 고민하며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하고 노력하면 그 모두가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모두 재산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께서도 평범하지만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특별함을 깨닫고,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100% 녹여 내시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두의 앞길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